



남북한 역사학의 교류와 충청남도

1. 고려 지배층 및 일반인의 무덤과 묘지명

1) 북한지역 지배층의 무덤과 묘지명

(1) 무덤의 유형 : 1m 안팎 크기의 석관묘(돌관무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당시 화장하여 시신을 묻는 불교장법에 따른 결과

(2) 대표적 분포 지역 : 개성시 용흥리, 개풍군, 고남리, 판문군 진봉리

(3) 주요 무덤과 돌관(石棺)

① 최항(崔沆)과 유방헌(柳邦憲)의 石棺(돌관) : 판돌의 가장자리에 흙을 파고 조립함으로써 돌들이 밖이나 안으로 물러나지 않도록 고정시킨 것, 뚜껑돌의 겉면에는 비천상, 연꽃무늬, 보리수꽃, 새 등이 새겨져 있음

② 허재(許載)의 돌관 : 판돌의 가장자리에 물림귀와 물림구멍을 만들어 사개물림의 방법으로 조립한 관, 뚜껑돌에는 비천상, 연꽃무늬가, 벽 아래쪽에는 12지신상이 새겨져 있음



허재(許載)의 석관

③ 개성시 장단군 法堂坊 무덤

；북한측 비무장지대인 장단군 진서면에 있는 법당방 고려고분은 고려 중기의 무덤으로 추측되며 1947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 조사를 했음. 모두 8기의 무덤이 발굴되었으나 이미 부장품은 도굴되어 벽화만 남아 있는데, 동서 양벽에 각 4인이, 남북벽에는 각 2인이 그려져 있으며, 아울러 십이지상, 일월성신도 등이 그려져 있었다.

④ 철원군 내문리 석관묘(북한측에서는 돌곽무덤으로 명명)

：20m 정도의 나지막한 등성이의 정점에 위치한 돌곽무덤으로, 돌곽은 직경 5m 깊이 1.5m의 구덩이 안에 바닥돌을 깔고 그 위에 두께 15cm의 판돌 4장을 세워 벽을 만들고 뚜껑돌을 덮었다고 함. 돌곽의 내부 벽면에는 12지신상이 그려져 있음

⑤ 동우동 돌곽무덤

：오석산 서남쪽 산줄기에 있는 무덤군으로, 고구려 무덤과 함께 10여기의 고려 돌곽무덤이 있음. 2002년 현재 고려 무덤 중 1개만 발굴.



장단군 법당방 고려고분 벽화

(4) 묘지명의 출토지와 현 소재지

- ① 유방헌묘지명 : 출토지 미상, 국립박물관 소재, 묘지명상의 무덤 위치(松岳北面 정남쪽[徵音])
- ② 최항묘지명 : 출토지 미상, 호암미술관 소재, 묘지명 상의 무덤 위치(鎭江縣 서쪽 昌支山 기슭)
- ③ 허재묘지명 : 출토지 미상, 국립박물관 소재, 묘지명상의 무덤 위치(汀州 (개성부 지역으로 추정)의 동쪽 기슭에 화장함)
- ④ 송자청묘지명 : 출토지 미상, 국립박물관 소재, 묘지명상의 무덤 위치(靈山 서쪽에 장례지냈다가, 얼마 뒤 다시 무덤자리를 점쳐 유골을 안장하였다. 명(銘)하여 이른다. 승안(承安) 연간의 여름이 시작하던 때, 어디에 유골을 모셔두었는가, 九龍山 속이로다)
- ⑤ 함유일 묘지명 : 출토지 미상, 국립박물관 소재, 묘지명 상의 무덤 위치(거처하던 집의 廳事에 빈소를 차렸다가 華藏寺의 남쪽 기슭에 장례지냄)
- ⑥ 장충의묘지명 : 출토지 미상,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재, 묘지명 상의 무덤 위치(서경에서 사망하자 아들이 유골을 거두어 개경으로 돌아와 廣德寺에 모셔두었다가, 개경 서쪽 扶蘇山 기슭에 장례지냄)

2) 북한지역 일반인의 무덤

① 무덤의 유형 : 땅을 파서 장방형 또는 방형의 구덩이를 마련하고 관이나 꺼묻 거리를 묻은 움 무덤이 주요 유형임. 움 무덤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이 있음

② 홀로 묻기 유형 : 장방형 무덤으로 길이 1.25~2.5m, 너비 50 cm 정도임. 홀로 묻기 움 무덤 중에는 간혹 측벽에 감실을 마련한 무덤도 있는데, 고남리 8호 무덤이 그것임

③ 함께 묻기 유형 : 고남리 19호 및 8호 무덤. 동쪽과 서쪽의 무덤 구덩이가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서쪽 구덩이의 동벽과 동쪽 구덩이의 서벽의 벽선 일부가 없어진 사례가 많음,

③ 화장형 유형 : 고남리 12호 무덤. 무덤에 재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으며 무덤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시신을 펴서 묻을 수 없음.

3) 남한 지역의 지배층과 일반인의 무덤

① 현황 : 진주 평거동 기년명 무덤군, 거창 둔마리벽화무덤, 안동 서삼동 벽화무덤, 여주 상방하원석실묘 등이 고려시대 무덤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공사 과정에서 파괴된 상태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분이나 벽화 실측도도 남기지 않은 채 유물만 수습하는 정도에서 그쳤음

- ② 고려시대 지배층의 무덤 특징 : 많은 경우 벽화를 그렸다는 특징이 있음
- ③ 파주 서곡리 무덤 : 민통선 안에 있던 무덤으로 도굴됨. 원래는 청주 한씨(韓尙質)의 무덤인 줄 알았다가 權準의 무덤임이 밝혀진 사연
- ④ 밀양 고법리 벽화무덤 : 고려말에 주로 활약하다 조선 건국후 1398년에 사망한 朴翊의 무덤으로, 묘지석이 함께 매장되어 있었고 매죽도와 인물풍속도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음.
- ⑤ 진주 평거동 기년명 무덤군 : 1079-1228년 150여년간 조영된 羅州丁氏의 무덤군, 무덤의 주인공은 시대순으로 1호분 丁悅, 2호분 丁允樺, 3호분 丁允宗, 4호분 丁彦眞, 5호분 丁堉 부부, 6호분 丁良이다. 제5호분의 면석에는 ‘令人鄭氏口墓云云’과 ‘丁亥十二月十日 大相丁堉葬’이란 명문이 남아 있음.

4) 충청지역 무덤과 묘지명

(1) 충청지역 무덤

- ① 유형 : 수혈식 석곽묘, 횡구식 석곽묘, 토광묘, 회곽묘, 화장묘

② 주요 지역

- * 토광묘 : 대전 가오동 유적, 천안 장신리 유적, 공주 장선리 토실 유적, 논산 원북리 유적, 보령 구룡리 유적
- * 횡구식 석곽묘+토광묘 : 천안 남산리 고려묘, 대전 노은동 유적, 부여 염창리 고분군 등
- * 수혈식 석관묘 : 단양 하방리 고분군

③ 주요 특징

- * 고려시대 주요 거점지역이었던 충주와 청주에 다수의 무덤이 분포하고 충남에는 공주, 대전, 부여를 중심으로 소수의 무덤이 확인됨.
- * 유형별로는 토광묘>횡구식 석관묘>수혈식 석관묘>화장묘와 회곽묘의 순서로 존재. 시기별로는 초기에는 주로 석곽묘가, 후기로 갈수록 토광묘가 많음(梁美玉,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 충청 출신 고려인 묘지명

① 李文鐸墓誌銘(청양) ② 申甫純墓誌銘(천안) ③ 鄭仁卿墓誌銘(서산인)

(3) 주목해야할 사실들

① 남북한 무덤 비교 연구 : 북한 지역의 무덤은 벽화가 많이 그려진 고위 지배층의 무덤이 많은 반면, 충남 지역의 경우 동일한 석관묘이더라도 벽화가 함께 그려진 경우는 거의 없음. 향후 북한과 충남 지역의 무덤의 양식 등을 면밀하게 비교하고 시기별 변화상을 추정함으로써 고려시대 충청지역의 역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② 북한 소재 묘지명의 발굴 : 영광김씨인 金克儉墓誌銘의 사례

2. 북한지역 주요 사찰 유물과 충남

1) 북한 지역의 주요 사찰과 탑

(1) 현존 사원

① 개성시 관음사 대웅전과 승방 : 관음사는 970년 개창하였고, 현재 건물은 1646년 건축

② 황해북도 사리원시 성불사 응진전 : 성불사는 5층석탑을 중심으로 극락전, 응진전 등 6채의 건물로 구성, 응진전은 1327년에 다시 지은 고려시대 건물로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며, 현재도 고려시대 단청이 남아 있음

③ 황해북도 연탄군 심원사 보광전 : 심원사는 1374년에 개축한 이후 여러 번 보수한 것으로, 응진전, 향로각 등 5채의 건물이 있음. 보광전은 배흘림기둥으로서 고려시기 건축의 특색을 지니고 있음

④ 평안북도 박천군 심원사 보광전 : 9세기에 세우고 1368년에 개축한 건물로, 현재도 고려시대 단청이 남아 있음.

(2) 절터

- ① 영통사터 : 개성시 용흥동 오관산 남쪽 기슭, 대각국사비와 당간지주 및 2기의 석탑, 의천의 묘실터 및 부도탑이 존재
- ② 불일사터 : 개성시 관문군 선적리의 보봉산 남쪽 기슭, 광종의 어머니 원당. 전형적인 1탑식 가람배치
- ③ 현화사터 :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의 영취산 남쪽 기슭, 현종의 부모를 위해 지은 원당으로, 유명한 현화사비 등이 있음.
- ④ 신광사터 : 황해남도 해주시 신광리에 소재한 사찰. 남북으로 놓인 장방형 돌담 구획 안에 3개의 문이 있고 그 북쪽에는 만세루, 보광명전, 5층석탑, 대웅전 등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나아가 절터 골짜기를 따라 600미터 떨어진 곳에 돌담이 있음.

(3) 북한 지역 고려 석탑

- ① 고려의 석탑 분포 지역 : 압록강 유역, 청천강과 대동강 유역, 개성을 비롯한 중부 지역 일대
- ② 영명사 8각5층 석탑 ③ 현화사 7층석탑 ④ 불일사 5층석탑 ⑤ 보현사 9층석탑

→ 북한의 연구 : 위의 석탑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영명사 8각 5층탑 유형은 평양과 강원도, 전라북도에 분포하고, 현화사 7층 석탑의 유형은 백제의 정리사탑과 연계되며 충청도 일대에 많이 분포하고, 불일사 5층석탑 유형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주로 분포한다고 분석하였음.

(4) 석당

① 해주 다라니 석당(海州陀羅尼石幢) :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해주공원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당으로 높이는 5.3m이다. 石幢은 다라니불경을 돌에 새겨 기둥처럼 세워 놓은 돌 구조물이다. 즉, 6각몸돌에는 ‘대불정다라니 당’ 이라는 당명과 함께 범어로 된 大佛頂陀羅尼經이 새겨져 있다. 현재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의 석조물.

② 성동리 다라니석당 : 1027년경 세워진 고려시대 불정사라는 옛 절터에 있었던 석조물로서 현재는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묘향산 보현사에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기단 부분의 원형 사리함 안에서 고려시대의 석당형 청동탑과 4각 청동거울, 동전 등이 발견되었다. 석당 발굴시 발견된 ‘淳化元寶’ (990년~994년)가 있어 석당의 건립시기를 1027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함께 발견된 청동탑은 다라니 석당 건축 당시 견본품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함.



해주 다라니 석당과 석탑

2) 충청과 충남 지역의 주요 사원

(1) 충청지역의 주요 사찰

① **개태사(開泰寺)** : 936년(태조 19)에 고려의 왕건이 후백제를 제압하고 세운 사찰. 개태사에는 석조삼존불입상과 오층석탑, 철화 등이 있고 개태사지에서는 석조공양보살상과 석조(石槽) 등이 수습되었다.

② **관촉사**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관촉리 반야산에 있는 절. 법당은 1386년(우왕 12) 건립해 조선 후기에 세 차례 중수했음. 석조보살입상(보물 제218호)과 석등(보물 제232호)을 비롯해 사리탑 · 연화배례석 · 사적비 등이 있다.

③ **마곡사**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의 사찰. 640년(신라 선덕여왕 9)에 자장 율사가 창건한 절로, 고려 중기에 지눌에 의해 중건. 이후 소실되어 많은 건축물일 조선 후기에 재건되었음. 고려의 유산으로는 중국 원대의 라마식 보탑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5층석탑(보물 제799호)이 있음.

④ 수덕사와 수덕사 대웅전 : 백제 말에 崇濟法師에 의하여 고려 공민왕 때 懶翁이 중수한 사찰. 대웅전은 1308년(충렬왕 34)에 건립된 건물로서 건축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

(2) 충남지역 주요 탑

- ① 부여군 무량사 5층탑, 장하리 3층탑 ② 당진군 안국사탑
- ③ 서천군 비인 5층탑 : 정림사지 석탑 계열의 고려 석탑
- ④ 서산군 보원사 5층탑, 개심사 5층탑 ⑤ 공주시 마곡사 5층탑
- ⑥ 청양군 서정리 9층탑

(3) 충남지역 주요 불상

- ①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삼존좌상 ②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 유물
- ③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 ④ 청양군 장곡사철조약사여래

(4) 충남지역의 기타 유물 및 불복장

① 천안 광덕사 고려사경 ② 개심사와 마곡사의 청동음입사 향완

③ 충남 예산 수덕사 무이당 소장 소조여래좌상 불복장 유물—〈大方廣佛華嚴經疏〉〈妙法蓮華經〉 등의 불경 8점, 특히 崔怡의 발문이 있어 주목

3) 주목되는 사실들

(1) 고려시대의 도량형 연구

① <<고려 유적연구>>(리창언, 사회과학출판사)에서는 북한의 주요 고려 사찰 건물에 쓰인 자(尺)를 환산하여, 당시 30cm, 31.3-31.5cm, 35.7-36cm 등 3종류의 자가 사용되었다고 함. 그에 비해 남한에서는 고려의 척을 약 31cm로 보고 있음

→ 도량형 연구의 비교사적 고찰 요망

* 충남 부여시 쌍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척(29.0cm ; 사진)이 있음.

* 청주 사뇌사(思惱寺) 터 출토 청동 기름말(국립박물관 소장)



청주 사뇌사터 청동 기름말

(2) 석탑의 비교 연구

: 그 동안 석탑의 연구는 남북의 주요 석탑만을 비교하는 정도에서 검토되어 왔으나, 향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석탑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고려 석탑의 특징은 물론 충남의 지역적 특성 확인 要

→ **고려 충남지역의 탑과 민간 신앙** : 금산 아인리 석탑, 금산 송암사 3층탑, 금산 계진리 석불입상, 금산의 釋頭나 금산 탑선리 3층석탑 등처럼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지역 사찰에서 건축한 불교 유물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금산 탑선리 3층 석탑: 중도리 탑선마을 앞에 있는 고려시대의 탑, 높이가 2m20cm 가량이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허물어졌던 것을 이 마을 박장하(朴壯夏)가 바로 세우고 보호하고 있다고 함.

*금산 아인리 석탑 : 금산읍 아인리 금산산업고등학교와 금산동 중학교 사이에 있는 높이 200cm의 3층 석탑이다. 탑 주변에서 ‘金貴大德’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어,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판명



금산 탑선리 3층석탑

(3) 불상 연구에서 주목되는 사실

- *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군사 남방한계선(미확인 지뢰지대)에 목이 잘린 불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석불의 계통을 잇고 있다고 추정됨.

- * 관촉사의 은진미륵이나 개태사의 삼존불, 부여 대조사의 석조보살입상 등과 연계하여 고려시대 거석불의 계통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DMZ을 비롯한 북한 지역에 유사한 불상이 더 있는가를 확인 요망된다.



DMZ 소재의 목이 잘린 불상
(출처 : [HTTP://LEE KIHWAN.KHAN.KR/946](http://lee kihwan.khan.kr/946))

3. 북한 소재 주요 山城・邑城 및 충남

1) 북한 소재 주요 산성과 읍성

① 대흥산성 : 개성시 북쪽 약 24km에 소재한 산성. 4개의 대문과 2개의 소문, 4개의 암문이 있다. 대흥산성 안에는 4개의 창고와 무기고 등이 있고 또 관음사와 대흥사 등의 절도 존재함.

② 구주성 : 개성과 마찬가지로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평산성, 내외성에 총 8개의 성벽이 있음. 흥미로운 사실은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성벽 밑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하문이 있어, 전투 인원들이 은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함.

③ 경성읍성 : 함경북도 경성군 승람로동 지구에 있는 평지성, 경성은 국경의 도시뿐만 아니라 남쪽 지역과 긴밀하여 연결된 교통의 요지.

2) 충남 지역의 산성 · 읍성 현황과 마을 유적

① 부소산성—백제시기의 산성

② 충남의 해안에 축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14개 읍성 중 홍주읍성과 덕산읍성은 고려말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차용걸, <<고려 말 · 조선전기 대외관방사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136-139쪽).

3) 충남의 마을 유적

① 대전 상대동 유적 : 고려 전기 교통 · 숙박시설 및 읍사 · 객사 · 향교 · 창고 등의 공공시설들이 마련된 邑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고려 촌락 연구에 중요한 자료

② 대전 가오동 유적

4) 주목되는 사실들

① 북한에서는 도성(읍성)에는 산성도 있고 평지성도 있으며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된 평산성도 있는데, 전자들은 극히 드물고 평산성이 절대 다수라고 연구되고 있다.

즉, 도성(읍성)은 일정한 수의 주민들과 군산 인원들이 살 수 있는 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대개 도성은 평산성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함. 또한 북한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평산성으로, 개성의 외성, 의주읍성, 구주읍성, 박주읍성, 안주성, 황주성 등을 꼽고 있다.

② 남한측의 연구 : 최근 치소성(治所城)에 주목한 연구에서도 고려의 치소성은 대개 전기에 평산성이었는데 고려 후기에 이르러 점차 평지성이 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현재 그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다만, 위의 연구에서도 북계 지역의 성은 대개 산성이라고 연구되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남북한의 합동 연구가 요망된다.

4. 고려시대 교통로와 충남

1) 남북을 잇는 도로망과 해로

(1) 고려시대의 주요 도로망

① **長湍渡路** : 개경의 동쪽 방면 도로, 개경-松林縣(개성 장풍군 고읍리)-長湍(경기도 연천군 장남면)-長湍渡-積城(파주시 적성면)-見州(경기도 양주)-梁州(서울 광진구)-廣津 나루를 잇는 총 227리의 도로

→ 편의시설, 주요 거점 주현의 존재, 임진강의 도강에서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고려전기에 주요 도로망이 됨

② **臨津渡路** : 개경의 동남쪽 방면 도로, 개경-臨津縣-臨津渡(현 파주시 파평면 울곡리 부분)-峯城縣(파주시 파주읍 일대)-高峯縣(현 경기도 일산)-한강의 沙平渡(한남대교)로 이어지는 총 180리 도로

→ 문종 21년에 양주가 남경으로 승격되며 개발되면서부터 임진도로가 중시되기 시작했음

2) 남북을 잇는 해상교통로

(1) 고려의 조운로와 남북한

① 고려의 漕倉 : 12-13조창

② 충남의 해양 유물 : 태안 마도, 보령 원산도, 보령 삽시도

3) 주목되는 사실들

① 고려의 통일전쟁과 충청의 도로

② 장단도로에서 임진도로로 중심 도로망의 변경이 충남의 지역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